



지난 1일부터 열려 3만여명이 관람한 제1회 신문·뉴미디어 엑스포가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호남의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 부스에도 호남지역 항우동 1만여명이 몰렸다.

‘한국 민주주의와 함께 한 57년’ 1만여명 관람

신문엑스포 광주일보 부스 관람객 몰려… 오늘 폐막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광주일보와 조선·동아일보등 전국 47개 신문사가 참여한 제1회 ‘2009 신문·뉴미디어엑스포’가 5일 폐막한다.

지난 1일부터 5일간 고양시 일산서구 캠퍼스(KINTEX)에서 열린 이번 엑스포는 4일까지 3만여명이 다녀갔으며 5일까지 약 4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 부스에도 4일

현재 전국에서 몰린 관람객과 광주·전남 항우동 1만여명이 찾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항우동에 인해 매일 오전에 준비한 광주일보 신문 500부가 금세 동나기도 했으며 과거에 발행된 신문을 보고싶어하거나 경기지역에 서 광주일보를 구독할 수 있는지 여

부를 물기도 했다.

광주일보의 ‘한국 민주주의와 함께 한 57년’을 주제로 한 전시는 호남의 대표정론지로서의 무게감을 잘 표현해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영모 전한국기자협회장은 광주일보 전시를 관람한 후 “신문의 역사성과 기록성을 가장 잘보여준 기획이었다”고 말하고 “멀티미디어를 동원 알맹이 없는 요란한 전시가 대부분인 가운데 광주일보는 읽는 매체로서의

신문의 개념을 가장 잘살린 전시였다”고 평가했다.

또 ‘광주일보 시사민화 시대를 올리고 웃기다’란 전시는 1950년대 이후 시대상을 4컷만화에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피니언 리더층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이홍우, 안의섭, 정운경, 김종우 회백 등 ‘스타민화가의 산실’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강필상기자 kps@

“도전 정신으로 일하면 누구든 두각 나타낼 수 있어”

한인 1세 첫 美 직선시장 된 강석희 어버인 시장

“나의 이야기가 나 같은 보통사람에게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한인 1세로는 처음으로 직선 시장에 당선된 강석희(56) 어버인 시장은 4일 오후 서울 리조트호텔에서 자서전 ‘유리천장 그 너머’ 출판기념회가



생각으로
무장한
다면 좋은
나라, 정다운
사회, 끈끈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조
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종합병원 동강대학에 장학금 전달



무안종합병원(이사장 어근)은 산학협력 대학인 동강대학(총장 이주석)의 간호과 학생 6명에게 총 1천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장학금을 받는 6명의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무안종합병원에 취업하게 된다.

한국 걸스카우트 전남연맹 장흥 신선의 집 위문금품



한국 걸스카우트 전남연맹(전장순) 송죽대 회원 19명은 4일 기정의 달을 맞아 장흥군 유품리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신선의 집(원장 계희건)을 방문, 쌀 등 3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장흥=김용기자 kykim@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이영근·김경임씨 막내 승연군 최재희(광주시청 시청각자료실·광주문화사랑협의회운영위원장)·나수자씨 친녀 의명양=9일(토) 낮 12시50분 애벌루션 웨딩컨벤션.

▲류근준(유산태복수건설 대표)·김주님씨 장남 협렬군 최화상·박현숙씨 장녀 은진(보훈병원)양=10일(일) 오전 11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2층(컨벤션홀)

▲박해룡·이현님씨 장남 득근군 박경하·이경례씨 장녀 회경양=10일(토) 오후 1시30분 상무리지 컨벤션 웨딩홀(데이지홀)

▲김효수·현혜경씨 막내 영석군 김성숙·김상심씨 친녀 소연양=9일(토) 오전 11시30분 광주 쌍암동 성당(분당) 2층.

▲신상철(전남대 교수)·김옥희씨 장남 대은군 최종대(농협 광주 금남로 지점장)·채진희씨 장녀 지혜양=9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 웨딩홀(파이어홀)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유명) 월례회=5일(화) 오후 6시30분 신성한민어학집, 062-227-2179.

▲광주·전남 대교 충동창회 체육대회=5일(화) 오전 10시 모교 운동

장, 011-606-5113.

▲광주 송일고·동강중·동성여중·충동문화회(회장 손형섭) 학미을 대축제=10일(일) 오전 10시 광주동성고 운동장, 062-361-2680.

▲북성중 제6회 동창회(회장 이창균) 월례회=6일(수) 오후 6시30분 미송식당, 062-223-6322.

▲순천고 칠광회(회장 김문기)=7일(목) 오후 6시30분 원불교 맞은 편 기차집, 062-226-8920.

▲대촌무학초등학교 제10차 총동문회(회장 김종선)=9일(토) 오전 10시30분 모교 교정, 010-8289-6589.

▲보성중 26회 동문도임(재광회장 손수석)=9일(토) 오전 10시 응진면 제암산 휴양림, 010-5602-6877.

▲광주·전남 대교 충동창회 체육대회=9일(토) 오전 11시 하랑공회관, 062-574-2395.

▲유은학원(광주상고·동성고·광주여상고·동성중·동성여중)·충동문화회(회장 손형섭) 학미을 대축제=10일(일) 오전 10시 광주동성고 운동장, 011-636-14562.

▲고씨 광주 종문회(회장 고석태) 정기총회=9일(토) 오전 11시 서울 웨딩홀 9층(현대극장 옆 수기동), 062-225-7935, 010-4615-6784.

▲제주양씨 종부정공파·참관공 종친회(회장 양길오) 정기총회=9일(토) 오전 11시 광산구 운수동 70-10번지 영모재, 010-7578-6321.

▲하동정씨 광주·전남 2009(38회)년도 정기총회(회장 정문기)=9일(토) 오전 11시 하랑공회관, 062-

223-7340.

▲인동권씨 종친회(회장 권상현) 제31회 정기총회=9일(토) 오전 11시 청기와 웨딩홀 6층, 011-636-4562

알림

▲경주김씨 재광 이사 월례회의(회장 김두석)=6일(수) 오후 6시 미송식당, 062-223-6322.

▲고씨 광주 종문회(회장 고석태) 정기총회=9일(토) 오전 11시 서울 웨딩홀 9층(현대극장 옆 수기동), 062-225-7935, 010-4615-6784.

▲제주양씨 종부정공파·참관공 종친회(회장 양길오) 정기총회=9일(토) 오전 11시 광산구 운수동 70-10번지 영모재, 010-7578-6321.

▲하동정씨 광주·전남 2009(38회)년도 정기총회(회장 정문기)=9일(토) 오전 11시 하랑공회관, 062-

평생교육원, 062-373-6183, 010-4702-4153.

부모

▲오세종씨 별세 영용·영관·현숙·영숙·정자씨 부친상=발인 6일(수) 그린장례식장 6분향소, 062-250-4406.

▲이순석씨 별세 구연(하이트맥주 호남본부장)·한국(자영업)·경례·경자·경남·정숙·경숙씨 부친상=발인 6일(수)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김경수씨 별세 상훈·상희·명주씨 부친상=발인 5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강형준씨 별세 현경·형찬·정순·주연씨 부친상=발인 5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2호, 062-227-4000.

모집

▲세원하이테크(주) 생산직 구인(남)=4대 보험적용·주5일 근무·군필자·운전면허소지자 하남공단 6번 도로, 062-962-3600.

▲광주·전남 생태 귀농학교 학생 모집=7일~6월22일 오후 7시~9시(매주 월·목) 광주가톨릭대학교

▲조승래씨 별세 현경·칠희·진씨 부친상=발인 5일(화) 그린장례식장 3분향소, 062-250-4405.

▲양영희씨 별세 경훈·현정·효정씨 부친상=발인 5일(화)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배영순씨 별세 유정종·옹중·정미·미씨 모친상=발인 5일(화)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062-250-4405.

▲조옥순씨 별세 김은수·전수·선수·민숙·은숙·행숙·건숙씨 모친상=발인 5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강형준씨 별세 현경·형찬·정순·주연씨 부친상=발인 5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2호, 062-227-4000.



효행·선행상 수상 자랑스런 어린이들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착한 어린이들이 광주 서부교육청 주관으로 남구청장 표창을 받았다. 수년 동안 훌체어를 탄 친구의 손발이

되어주는가 하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의 평생 도우미를 자청하고 나서는 등 어른들도 하기 힘든 선행을 실천하는 어린이들을 소개한다.

4년째 같은 반 자청 지적장애 급우 도와

광주 제석초 송경화 양

“친구와 저는 한 몸이나 다름없어요, 종학교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광주 제석초 송경화(6학년)양은 4년째 지적장애 친구인 A양과 잠자는 것만 빼곤 늘 함께한다.

경화양은 3학년 때 A양과 짹꿍으로 인연을 맺은 뒤 학년이 올라



갈 때마다 같은 반을 요청해 A양의 곁을 지키고 있다. 경화양은 A양의 알립장 쓰는 일부터 수업 준비물을 챙기는 일은 물론 등하굣길까지도 매일 돋고 있다.

등하굣길 친구 손발 된 ‘휠체어 도우미’

광주 금당초 김재나 양

광주 금당초에 가면 친구의 훌체어를 2년 동안 밀어주고 있는 김재나(6학년)양은 만날 수 있다.

재나양은 5학년 때 우연히 훌체어를 타고 있는 같은 또래의 민주양을 만난 뒤 훌체어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귀도 잘 들리지 않고, 팔에 힘도 없는 친구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재나양은 민주의 평생 친구가 되어 주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재나양은 “영희는 맑은 민주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착한 어린이로 변하게 된다”면서 “민주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 친구 급식·하교까지 책임져

광주 수문초 김우찬 군

광주 수문초 김우찬(4학년)군은 몸의 절반이 마비된 뇌병변 장애 2급을 앓고 있는 형수(가명)의 둘도 없는 ‘절친’이다.

우찬군은 등교와 동시에 팔과 다리로 움직이기 힘든 형수의 ‘어머니’이자 든든한 친구가 된다.



교 때도 우친군과 형수군은 늘 함께한다. 이 같은 우친군의 모범적인 모습에 감동한 주변 친구들도 형수군을 돋는 데 힘을 보태는 등 ‘우정 바이러스’가 교내로 확산하고 있다. 우친군은 “형수와 함께 운동장을 뛰어노는 게 가장 큰 꿈”이라면서 “의사가 돼 형수의 아픈 몸을 꼭 고쳐주고 싶다”고 말했다.